

AI 천하... '메모리 슈퍼 사이클' 황금기 맞았다

올 반도체 시장 1조 달러 전망... 메모리가 4400억 달러
HBM3E 주력 제품... SK하이닉스, 출하량 62% 차지
신무기 HBM4도 70% 점유... 수익구조 선순환 구축

SK하이닉스 '팩트 & IR' 자료

올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을 계기로 시장 구조와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과도기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SK하이닉스는 5일 '팩트 & IR' 자료에서 시장조사업체와 투자은행들은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근접하며,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과 수익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 재편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메모리 부문은 30%대 성장률로 전체 시장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업체와 투자은행들은 서버 데이터센터용 메모리가 특히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를 4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AI 학습과 추론 수요 확대와 맞물리면서,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D램과 HBM 용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용 SSD(eSSD) 수요까지 더해지며 AI 인프라 전반에서 메모리 수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2024년 이후 메모리 강세를 두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올해를 199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사이클로 평가하며,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년 대비 51%, 낸드는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판매단가(ASP) 역시 D램 33%, 낸드 26% 상승을 예상했다. HBM은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다. BofA는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0억 달러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주문형 반도체(ASIC) 기반



AI 칩용 HBM 수요가 82% 급증하며 전체 HBM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HBM 시장의 주력 제품은 HBM3E가 될 것이라는 데 업계 의견이 모인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울트라'를 비롯해 구글, AWS 등 주요 빅테크가 HBM3E를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HBM 전체 출하량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선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5

년 2분기 기준 HBM 출하량 점유율 62%, 매출 기준 57%를 기록하며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SK하이닉스가 HBM3HBM3E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UBS 역시 구글의 차세대 TPU에 HBM3E를 공급하는 첫 업체가 SK하이닉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HBM3E에서 확보한 리더십은 HBM4로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확보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섰다. TSMC와의 패키징 협업 강화, 청주 MI5X 램 구축, HBM 전

담 조지 신실 등 생산과 기술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UBS는 올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7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세대 제품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이 결정적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격과 공급, 지정학 리스크는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 외신과 시장조사기관은 올해 이후 HBM 가격이 생산능력 확대와 경쟁 심화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발 업체들의 D램 증설과 글로벌 규제 환경도 증장기 변수다.

그럼에도 고성능 HBM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시장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HBM 집중 투자는 범용 D램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며 메모리 전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는 HBM3E가 AI 메모리의 '황금 표준'으로 자리 잡고, HBM4가 증장기 성장 궤적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와 투자기관들은 공통적으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상에 SK하이닉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 냉각... 겨울잠 자는 내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경기 전망이 나란히 하락하며 내수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 소비가 마무리된 데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종료되면서 체감 경기가 다시 식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해 1월 경기 전망지수(BSI)는 76.1로 전월보다 7.1p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는 69.7로, 한 달 새 11.1p나 떨어졌다. 두 지수 모두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아 경기 약화를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BSI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실적과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 미만은 경기 약화를 의미한다. 전통시장 전망 BSI는 지

난해 10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지난해 1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본 가장 큰 이유로 경기 악화 요인이 꼽혔다. 소상공인의 71.7%, 전통시장의 70.4%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말 소비 이후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하락 폭은 의류·신발, 음식업, 농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업

종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은 조사 대상 전 업종에서 전망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소상공인 역시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전망이 나빠졌다.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경남·부산·대구·세종 등에서는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역 경기 위축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소비 흐름 둔화의 배경으로 소비쿠폰 효과 종료로 지목한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

쳐 약 9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사용 기한이 종료되면서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며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외형적인 소비 지표와 달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며 "연초 비수기와 맞물려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상공인 업종과 전통시장 사업체 37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달 경기 동향 조사를 통해 정책 대응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새해 한정판 출시

동국제약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신제품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레드 라이즈 에디션'을 출시했다. 5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활동적으로 역동적인 기운을 담아 기획한 한정판이다. 크림 구성은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50ml) 2개 입으로 되어 있다.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은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춰 보다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는 지속노화를 콘셉트로 다각도 리프팅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공한다. 피부 간에 수분을 촘촘하게 채우고 피부 부선을 탄탄하게 정돈하며 얼굴 전체를 끌어올리는 피부 저속노화 3단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부 탄력을 복합적으로 케어하고 맨 피부에도 생기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레드 라이즈 에디션' 동국제약

있는 광채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정판 패키지에는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한 강렬한 디자인을 적용해 새해를 맞는 기대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heosa@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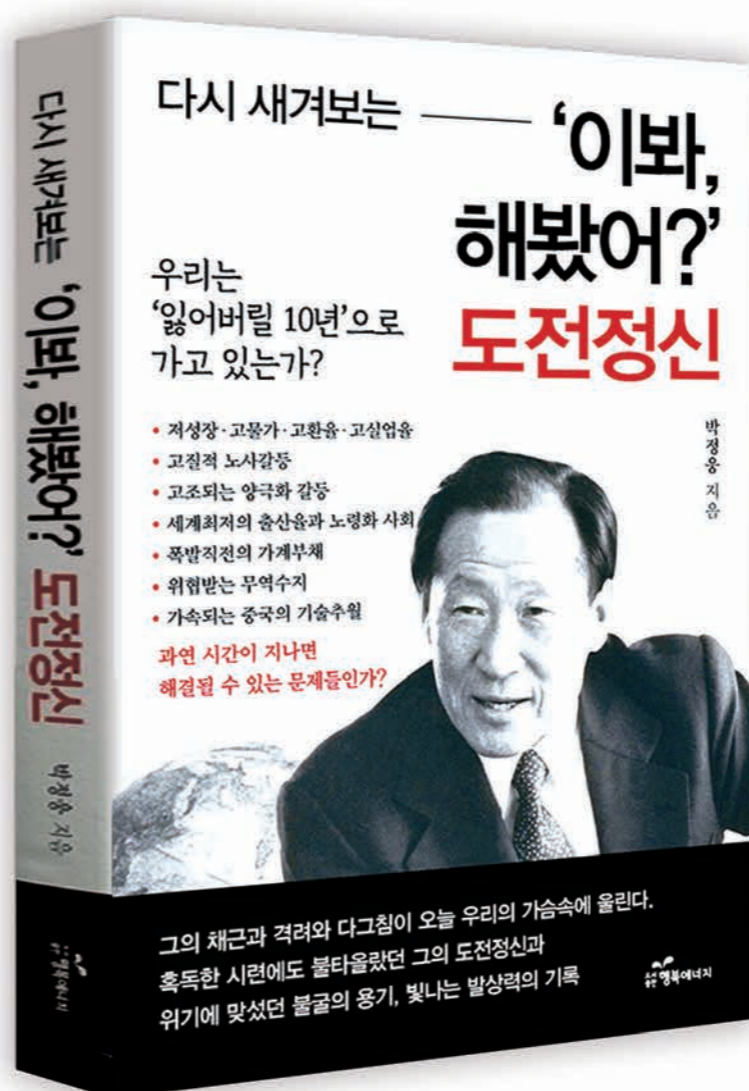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백 걸 활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세신, 더 질서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번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